

# 기사문 번역의 재맥락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뉴스위크 한국판과 일본판의 평가어 분석을 중심으로

이 주 리 애  
(한국의국어대)

## 1. 서론

Hatim & Mason(1990: 223-224)에 따르면 번역자란 원천텍스트(Source Text: ST)의 생산자와 번역된 텍스트(Target Text: TT)의 수용자 사이에 매개 역할(mediator)로 존재하며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두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Toury(1995: 29)는 목표어 중심 번역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일대일 번역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문맥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자의 매개의 정도는 TT독자의 이해의 폭에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그 결과 문맥에 영향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불가피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번역으로 인하여 재맥락화(recontextulization)가 이루어진 경우, 독자들은 재맥락화된 번역물을 오리지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Munday 2007: 196)

이는 번역을 할 때 등가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특정 문화소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본다. 번역된 기사의 재맥락화는 ST 혹은 TT 중심이 아닌 번역자와 번역기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ST와 TT의 사이(Between)에 있는 존재이지만 결국 자국 문화 안에 존재하며(Tymoczko 2003: 183) 어떠한 형태로든 번역은 목표 언어의 문화권에 맞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문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문을 자료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각각의 맥락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사와 일본의 아베 전 총리,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한 기사이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한국판과 일본판 모두 2006년 하반기 취임이 확실시 되던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어 특정 기사 뿐 아니라 그 동안 보도가 되어온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뉴스위크 한국판과 일본판에서 관찰되는 재맥락화 양상을 부분적 재맥락화와 전체적 재맥락화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ST와 TT(한국판과 일본판) 사이의 거리를 설정하여 도식화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ST의 맥락과 TT의 맥락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본고에서는 Martin & White(2005)의 평가어(appraisal)를 적용하여 그 사용의 차이를 보겠다. 평가어 분석의 핵심은 “태도의 운율(prosody of attitude)”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전체 텍스트를 통해 평가어의 개인적인 선택이 전체적인 인상(tone of mood)을 결정짓게 되며(이창수 2010: 150), 이를 번역에 적용했을 때 ST와 TT에 대해 저자와 번역자의 시각이 어떻게 담겨져서 전체적인 맥락이 형성되고 있는지 탐구해 볼 수 있다(Munday 2010: 80-81)<sup>1)</sup>.

1) 평가어를 번역에 적용한 연구로 이창수(2007, 2009, 2010)에서는 두 영어 관광안내서의 평가어를 분석하여 사용패턴의 확인한 차이를 밝힘으로써 그 차이가 두 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영역할 때 영어권의 평가어 사용의 특징을 적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학작품의 경우 번역자의 평가어 선택의 차이가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논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Baker(2006: 332)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란 번역행위를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번역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맥락화는 ST의 맥락을 TL로 구현하면서 번역자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재구성되는 것이므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맥락화’란 이철원(2004)에 따르면 현장에 맞게 이론이나 관점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특히 문화에 근거해서 상호관계나 경험을 이해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재맥락화는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사문 번역은 상당히 매개화되고 재맥락화된 담화의 작용이 포함되며(kang 2010: 158) 번역기관의 제도적 권위, 이데올로기 등과 복잡하게 연관된 재맥락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Kang 2007: 220). ST에 대해서 하나의 TT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두 개 이상의 TT를 비교해 보면 TT간의 배경의 차이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문의 재맥락화를 본고에서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 내러티브(narrative), 리프레이밍(reframing)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Fujii(1988: 32)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에 대해 수많은 메시지를 취사선택하여 조절하는 것이며 특히 기사 번역에 있어서 게이트키퍼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 역할이란 뉴스의 선택(controlling)을 비롯하여 특정 표현의 삭제(deletion), 표현의 전환(transforming), 내용의 보충(supplementing), 재구성(reorganizing)이며 이는 내용의 조작(manipulation)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뉴스위크 한국판과 일본판은 영문판의 다양한 뉴스 중 자국에 소개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별하게 된다. Venuti(1998)는 번역이란 자민족 중심적인 활동이며 번역대상이 되는 외국텍스트는 그것의 산출과 동기가 되었던 외국 문화의 취향들과는 다른 자국의 취향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택된다고 한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이미 게이트키퍼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한국판과 일본판은 서로 다른 기사를 싣게 되는 것이다. 일단 선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된다. 즉, 내러티브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Baker(2007: 151)에 따르면 내러티브란 우

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story)'이며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행위를 실제 세계로 이끌어 간다고 한다. 이 내러티브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날이 새로운 이야기에 노출될 때 미미하게 혹은 극단적으로 변화한다(Baker 2006: 3). 기사문은 ST의 독자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형성된 맥락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는 ST의 맥락이 TT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맥락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Baker(2007: 156)는 번역의 프레임링(framing)은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내러티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선택된다고 한다. 따라서 ST의 제목과 TT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를 경우 리프레이밍이 이루어지며 번역에 의한 재맥락화로 이어진다.

## 2.2. 평가어(appraisal) 및 뉴스위크 번역 연구

Halliday(2004)의 체계기능주의 문법에서는 텍스트를 필드(Field: 담화의 내용), 테너(Tenor: 담화참여자), 모드(Mode: 담화방식)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테너는 대인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로 나타나며 서법(mood), 양태(modality), 평가어(appraisal)가 포함된다. 평가어는 Martin & White(2005)에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Attitude(태도), Graduation(강도), Engagement(개입)로 나뉘어지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양분할 수 있다.

- (1) Attitude(태도): affect(감정), judgement(사람에 대한 평가), appreciation(사물, 현상에 대한 평가)으로 나눌 수 있다.
- (2) Graduation(강도): attitude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어휘 뿐 아니라 부사어의 첨가로 의미를 좁히거나 확장하거나(force), 초점(focus)의 정도로 의미를 애매하게(blurring: sort of 등)하거나 특화(sharpening: real, true 등)할 수 있다.
- (3) Engagement(개입): monogloss(타자의 언급을 고려하지 않음)와 heterogloss(타자의 언급이 있었음을 밝힘: it seems, I hear 등)가 있다.

Munday(2010)는 평가어를 번역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정 평가어에 대한 인식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자칫 오

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휘에 대해 번역자는 특정 평가어를 삭제하거나 강도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기사에서도 평가어의 사용을 문맥에 따라 판단하고 분석하여 ST의 맥락이 TT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뉴스위크<sup>2)</sup> 한국판에 대해서는 강지혜(2005, 2007, 2008, 2010)에서 제목의 번역 및 북한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 뉴스위크 일본판<sup>3)</sup>에 대해서는 Barnard(2000)에서 일본 도카이무라 원전사고에 대한 번역 기사를 분석하여 번역의 형태를 책임 회피(Irresponsibility), 침묵(Silencing Voices), 심각도(Level of Seriousness),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으로 나누었다. 또한, 뉴스위크 일본판의 보도 전략에는 현지인을 위해 친숙하게 표현하기 위한 자국화 전략도 지면 제약으로 인한 편집도 아닌 특정 기관을 의식한 그들만의 검열 과정(censorship)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는 모두 번역자 개인의 번역이라기보다는 기관 번역<sup>4)</sup> 즉, 제도적 번역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번역에서는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에서 번역 전략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강지혜 2008: 16). 뉴스위크 영문판의 번역<sup>5)</sup> 또한 개인의 번역이 아닌 기관 번역이며 각각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서 번역이

- 2) 뉴스위크는 현재 세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폴란드어 등)되어 발행되고 있는 글로벌한 시사지인 만큼 영문판이 각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학습자료 및 연구자료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 3) 뉴스위크는 시사지로 발행되어 지면으로도 접할 수 있으나 영문판, 한국판, 일본판 모두 웹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일부 기사는 웹상에서만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각 뉴스위크 사이트에서 검색된 기사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단, 일본판의 경우 2009년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그 이전의 기사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발행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 4) 강지혜(2005: 10)에 따르면 기관에서의 번역텍스트 제작은 특정 소속 번역자 또는 그 기관의 의뢰로 고정적으로 번역작업을 맡은 번역자가 원천텍스트를 번역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기관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 5) 강지혜 (2007)에 따르면 뉴스위크 한국판은 리라이터의 1차 번역 후 네이티브 체커를 거쳐 톱체커에 의해 번역한 텍스트 중 일부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뉴스위크 일본판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Barnard(2000)에 따르면 뉴스위크 일본판은 30명의 번역자와 15명의 편집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번역 후 네이티브 감수와 편집자를 거쳐 첨삭이 이루어진다. 특히 일본 관련 기사의 경우 일본인에 의한 인터뷰내용은 영문판이 아닌 오리지널 인터뷰 내용을 ST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위크 영문판의 동일한 ST를 번역할 때 맥락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ST(뉴스위크 영문판)에 대한 두 언어의 번역 버전(TT(a):한국판, TT(b):일본판)의 맥락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각 버전의 거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ST와 TT(a), TT(b)의 맥락이 동일한 경우, 두 번째로 ST와 TT(a)는 동일한 맥락이고 TT(b)는 다른 맥락에서 번역이 된 경우, 세 번째로 TT(a)와 TT(b)가 모두 ST와는 다른 맥락으로 번역이 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

	뉴스위크 영문판	뉴스위크 한국판	뉴스위크 일본판
1	South Korea Survived Recession With CEO Tactics (2010. 5.10)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빛난 CEO 대통령 (2010.5.19)	CEO大統領の賢い不況戦略 (CEO 대통령의 현명한 불황전략) (2010. 5.17)
2	A True Diplomat (2006.10.16)	불협화음 없애는 하모나 이저 되겠다 (2006.10.18)	「腐敗事務局を改革する」 (부패사무국을 개혁한다) (2006.10.18)
3	Asia's Glass Houses (2007.4.30)	역사윤색은 아시아의 고질병 (2007.5.2)	日本だけじゃない 歴史のごまかし (일본만이 아니다 역사의 속임) (2007.5.2/9)
4	We Bear Responsibility (2007.4.30)	“위안부 문제에 책임 느낀다” (2007.5.2)	慰安婦問題 責任感じる (위안부 문제 ‘책임 느낀다’) (2007.5.2)
5	Taking Sides (2010. 5.25)	UN사무총장은 조국의 문제에도 중립적이어야 할까? (2010.6.9)	事なかれ主義の潘基文が怒った! (무사안일주의 반기문이 화났다!) (2010. 5.26)

## 4. 분석

### 4.1. 맥락의 동일화

영문판의 기사에 대해 한국판과 일본판 모두 특별히 다른 사회적 편견이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맥락적인 측면에서 변경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기사의 경우, ‘한국’과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설명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영문판 2010. 5.10>

Lee Myung-bak once ran Hyundai, one of South Korea's largest companies, where ①he invested aggressively in opening new markets abroad, even through the recession in the early '80s. Now, as president, ②he has pushed a similarly aggressive long-term view, which helped South Korea weather the global downturn perhaps ③better than any other developed nation..One result is that South Korea's GDP growth hit 3.2 percent by the third quarter of 2009, ④making it the first wealthy country to emerge from the recession.

<한국판 2010. 5.19>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현대를 이끌었다. 그는 현대건설 CEO 시절인 1980년대 초 경기침체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①과감한 투자로 해외에서 신시장을 개척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②그는 그와 유사한 적극적인 장기 전략을 밀어붙인다.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③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더 잘 헤쳐 나갔다는 평을 듣는다. . . . 그 결과 2009년 3분기가 되자 한국은 GDP성장률 3.2%를 기록하면서 ④부유국 중 가장 먼저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

<일본판 2010. 5.19>

韓国の大企業の1つ現代建設を經營してい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不況に見舞われた80年代初頭にも国外で新しい市場を開拓しようと①積極的に投資を行った。今は大統領として、②同様に挑戦的な長期計画を打ち出している。おかげで韓国は、③他のどの先進国よりも世界同時不況をうまく乗り切った。. . . . 結果として韓国のGDP成長率は09年の7~9月期には前期比3.2%増に達し、④先進国の中では先陣を切って不況を抜け出した。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건설을 경영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불황에 휩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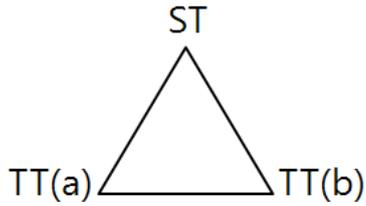
던 80년대 초에도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①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②마찬가지로 도전적인 장기계획을 내놓고 있다. 덕분에 한국은 ③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세계동시불황을 훌륭하게 극복했다. . . . 결과로서 한국의 GDP성장률은 2009년 7~9월기에는 전기대비 3.2%가 증가함에 이르렀고 ④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불황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서 영문판에 대한 한국판, 일본판 모두 유사한 논조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영문판	한국판	일본판
①	he invested aggressively	과감한 투자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②	he has pushed a similarly aggressive long-term view,	그는 그와 유사한 적극적인 장기 전략을 밀어붙인다.	마찬가지로 도전적인 장기계획을 내놓고 있다.
③	better than any other developed nation.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더 잘 헤쳐 나갔다는 평을 듣는다.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세계동시불황을 훌륭하게 극복했다.
④	making it the first wealthy country to emerge from the recession.	부유국 중 가장 먼저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불황으로부터 벗어났다.

한국판의 ‘과감한, 적극적인, 더 잘 헤쳐 나갔다는, 부유국 중 가장 먼저’와 일본판의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훌륭하게 극복,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ST와 TT(a), ST와 TT(b)의 맥락의 거리가 유사할 뿐 아니라, TT(a)와 TT(b)의 거리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림1〉

#### 4.2. 부분적 재맥락화

그간의 동일 대상에 대한 보도의 흐름이 없는 경우는 번역될 당시의 보도 대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번역이 되며 전체의 ST의 맥락은 유지하되 특정 표현만 수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재맥락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사문 ‘We Bear Responsibility’는 한국판은 비교적 영문판의 내용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일본판의 경우, 인터뷰 내용 중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영문판의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어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사례2>

<p>&lt;영문판&gt; Do you really believe the Imperial Army had no <u>program</u> to force Korean, Chinese and other women <u>to provide sexual services to Japanese soldiers?</u></p>
<p>&lt;한국판&gt; 2차대전 당시 제국시대 일본군이 한·중 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을 강제 동원해 <u>일본군 병사들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는 계획을</u> 세우지 않았다고 정말로 믿는가?</p>
<p>&lt;일본판&gt; 帝国陸軍は、中国その他の国の女性を、強制的に動員するシステムをもっていなかったと考えているのか。 (제국육군은 중국 기타 나라의 <u>여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을</u>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p>

여기서 일본판 번역만을 보아서는 영문판의 구체적인 설명 부분이 삭제되어

‘여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사례3>

<p>&lt;영문판&gt;                  We feel responsible for <u>having forced</u> these women to go through that hardship and pain as comfort women under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p>
<p>&lt;한국판&gt;                  우리는 당시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들이 시련과 고통을 겪도록 <u>강요한</u> 책임을 느낀다.</p>
<p>&lt;일본판&gt;                  そのときにそういう状況が、つまり、彼女たちがいわば慰安婦として存在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われわれは責任があると考えている。そのときの状況として、いわゆる慰安婦として、彼女たちが非常に苦しい思いをしたことに対して責任を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だ。                  (그 때 그러한 상황이 즉 그녀들이 이른바 위안부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때의 상황으로 이른바 위안부로서 그녀들이 <u>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u>)</p>

일본판에서 ‘having forced’ 부분을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누구에 의한 ‘고통’이 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문장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정확한 의미전달을 회피하고 있다. Barnard(2000)는 뉴스위크 일본판의 ‘도카이무라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면서 ‘침묵(Silencing Voices)’의 전략을 말하였는데, 이는 굳이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내용이나 어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들 사례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침묵’으로 부분적 재맥락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sia’s Glass Houses’의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시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사례4>

<p>&lt;영문판&gt;                  Yet Beijing today downplays Mao's mistakes –officially recognizing his legacy as 70 percent positive and 30 percent negative—and little attention is given to <u>his excesses in schools or the media.</u></p>
<p>&lt;한국판&gt;                  그러나 오늘날 중국 정부는 마오의 과오를 축소하고(공식적으로는 그의 업적 70%를 긍정적으로, 30%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학교나 언론에서 <u>그의 지나친 면</u>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p>
<p>&lt;일본판&gt;                  学校やメディアでも、<u>毛の残忍性</u>について語られ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                  (학교나 매스컴에서도 <u>마오쩌둥의 잔인성</u>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p>

영문판의 ‘his excesses’를 한국판은 ‘지나친 면’이라고 한데 비해 일본판은 ‘잔인성’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시화함으로써 재맥락화하였다.

다음은 한국판과 일본판의 번역이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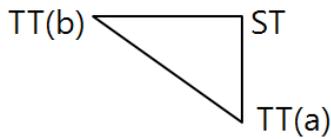
<사례5>

<p>&lt;영문판&gt;                  Tokyo thus bears a special responsibility for its history, and <u>its failure to honestly engage it has perpetuated</u> the politicization of the past across the region.</p>
<p>&lt;한국판&gt;                  이처럼 일본 정부는 역사의 특별한 책임이 있는데 <u>그것을 솔직하게 수용하지 않음으로써</u> 동아시아 전역에서 역사의 정치화가 <u>되풀이되도록</u> 했다.</p>
<p>&lt;일본판&gt;                  日本政府は自らの歴史に特別な責任を負っているのだ。<u>その責任を誠実に果たさないかぎり</u>、アジアにおいて歴史を政治問題化する動きは<u>終わらない</u>。                  (일본정부는 스스로의 역사에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u>그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지 않는 한</u>, 아시아에서 역사를 정치문제화하는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다.)</p>

‘its failure to honestly engage’에 대해 한국판과 일본판의 번역의 차이가 있다.

한국판의 번역의 맥락은 ‘일본이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일본판의 번역은 ‘책임을 인정하기는 한다’의 맥락이 될 수 있다. 또한 ‘it has perpetuated’가 한국판에서는 ‘지금껏 역사의 정치화가 되풀이되어 왔다’는 맥락이고 일본판은 ‘앞으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정치문제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맥락이 된다.

이렇듯 생략, 명시화, 변형을 통해 부분적 재맥락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사례의 경우는 글 전체의 문맥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일부만 수정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영문판(ST)과 한국판(TT(a))의 맥락의 거리는 유사하나 일본판(TT(b))은 부분적 재맥락화로 인해 ST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따라서 TT(a)와 TT(b)의 거리도 더욱 멀어지는 직삼각형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2〉

#### 4.3. 전체적 재맥락화

전체적 재맥락화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표현이 삭제되거나 첨가, 혹은 변형이 된 경우로 글 전체의 방향이 ST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 동안 보도되었던 맥락에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재맥락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어떠한 기사가 선정되고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TT(a)와 TT(b)가 모두 전체적으로 재맥락화되면 TT(a)와 TT(b)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글로 구현될 수 있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다루어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표3〉일본판의 2006년 하반기~2008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기사

1	2006.10.18	Moving Up the Ranks 次期総長はミスター根回し-事務総長になる潘基文・韓国外交通商相の敵をつくらぬ出世術- (차기총장은 미스터 물밑작업-사무총장이 될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의 적을 만들지 않는 출세술-)
2	2006.10.18	A True Diplomat 「腐敗事務局を改革する」-インタビュー 圧倒的支持を得た次期事務総長にも難題が山積。北朝鮮問題や國連改革への取り組みを潘基文に聞く- (‘부패사무국을 개혁한다’-인터뷰 압도적 지지를 얻은 차기사무총장에게도 난제가 산적. 북한문제와 유엔개혁 등에 대해 반기문에게 듣는다-)
3	2007.1.3/10	Vowing to Be a Harmonizer アジア的中庸で國連直しに挑む-潘基文(バン・キムン)(第8代國連事務総長)外交のプロが語る「静かな決意」 (아시아적 중용으로 유엔을 고치는데 도전한다-반기문(제8대 유엔 사무총장) 외교의 프로가 말하는 ‘조용한 결의’)
4	2007. 10.24	この人……誰？ (이 사람.....누구?)
5	2007. 11.7	Alone at the Top of the World 「韓國人びいきはしていない」 Q&A 國連の潘基文事務総長が語るイラク、北朝鮮、情實人事批判 (‘한국인 편들기는 하고 있지 않다’ Q&A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하는 이라크, 북한, 정실인사 비판)
6	2008. 6.4	Who Can Save Burma? 國連はビルマを救えるのか-災害援助 サイクロンと軍政による「人災」という試練で潘事務総長は手腕を見せたが- (유엔은 미얀마를 구할 수 있는가-재해원조, 사이클론과 군정에 의한 ‘인재’라는 시련에서 반사무총장은 수완을 보여줬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도된 기사에서는 대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2010년까지 시사지로 발행된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더 이상 보도되고 있는 기사가 없다. 그러나 웹으로 검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웹상으로 보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일본판의 2009년~2010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기사

1	2009. 6.23	Nowhere Man 世界で最も危険な韓国人、潘基文(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 반기문)
2	2009. 8.28	‘Spineless and Charmless’ ノルウェー外交官、「潘基文は無力」(노르웨이 외교관, “반기문은 무력”)
3	2009. 8.31	Still Going Nowhere Man やっぱり危険な事務総長、潘基文 (역시 위험한 사무총장, 반기문)
4	2010. 5.26	Taking sides 事なかれ主義の潘基文が怒った! (무사안일주의 반기문이 화났다!)
5	2010. 6.16	Muddled Messaging スーダン戦犯におもねる国連の機能不全(수단 전범에 기대는 유엔의 기능부진)
6	2010. 9.10	China's John Bolton 酔っ払い中国外交官、潘事務総長に暴言(술취한 중국 외교관, 반 사무총장에게 폭언)
7	2010. 12.9	U.N. Human Rights Chief Declines Invite to Nobel Peace Prize Ceremony 国連もノーベル賞より中国が大事? (유엔도 노벨상보다는 중국이 중요?)

<표4>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사 제목을 보면 ‘위험한, 무력, 무사안일주의’ 등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일본 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에 비해 뉴스위크 한국판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취임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해 왔다. 일본판과의 비교를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판에 게재된 기사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5〉한국판의 2009년~2010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기사

1	2009.12.9	<p>scope-Business Matters</p> <p>반기문 사무총장은 경제 부국들에 농업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늘려 생산성 높은 신종 작물과 인공 인산 개발 등 농업 기술혁신을 추진 하라고 촉구했다.</p>
2	2010.1.6	<p>scope-Perspectives</p> <p>“우리엔 1년이나 더 심사숙고 할 시간이 없다. 자연은 타협하지 않는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코펜하겐 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는 데 실망감을 토로하며.</p>
3	2010.1.27	<p>“아이티의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p> <p>‘MANY HANDS LIGHTEN THE LOAD’</p> <p>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십시일반의 정성 모아 구호활동을 적극 지원 해야</p> <p>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p> <p>...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아이티 UN 특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p>
4	2010.3.3	<p>누가 인권을 외치라!</p> <p>The downfall of Human rights</p> <p>세계 권력관도의 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실용주의 외교에 밀려 서 방 세계 지도자들도 ‘꿀 먹은 병어리’</p> <p>policy idealism</p> <p>...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전임자 코피 아난과는 달리 겸허한 자세 를 취한다.</p>
5	2010.3.31	<p>녹색 일자리는 성장 촉진</p> <p>GROWING GREEN JOBS</p> <p>친환경화에 힘쓰는 경제 각 분야의 광범위한 환경보호가 일자리 창 출에도 큰 도움을 준다</p> <p>...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한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 했다.</p>
6	2010.6.9	<p>UN사무총장은 조국의 문제에서도 중립적이어야 할까?</p> <p>Taking sides</p>
7	2010.9.1	<p>scope-Perspectives</p> <p>반기문 UN 사무총장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해 자신의 생애에 이처 럼 큰 홍수 피해는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의 구호 지원을 호소했다.</p>

<표4>와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부터 보도의 맥락이 바뀐 일본판과 긍정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오고 있는 한국판은 기사 선정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영문판의 기사<sup>6)</sup> 중에서 각각의 맥락에 맞는 기사만을 선별하여 번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한국판과 일본판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같은 기사가 번역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판의 ‘Taking Sides’가 유일하게 한국판과 일본판에 각각 번역이 되어 게재되었다. 과연 두 번역이 같은 맥락에서 ST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번역의 전환이나 생략이 때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Barnard(2000)는 뉴스위크 일본판의 편집장의 말을 인용하여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인해 특정 내용에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Taking Sides’는 두 번역의 길이가 비슷하며 일본판의 번역을 보면 영문판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1)

<영문판>yesterday

<한국판>최근

<일본판>5月24日

예2)

<영문판>North Korea for attacking a South Korean naval ship

<한국판>남한의 해군 함정을 공격한 북한

<일본판>韓國海軍哨戒艦が北朝鮮の魚雷攻撃で沈没した事件

(한국해군초계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

예3)

<영문판>

The previous night,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urged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action against North Korea for killing 46 sailors

6) 웹상으로 검색한 결과 영문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사가 69건이었고, 한국판은 42건이었다. 일본판의 경우 본고에서 제시한 인쇄지면 검색 6건, 웹 검색 7건이 전부이다.

in an unprovoked attack on the warship *Cheonan*.

<한국판>

그 전날 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은 천안함을 공격해서 장병 46명을 숨지게 한 북한을 대상으로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판>

潘の会見に先立ち、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すでに北朝鮮の攻撃で46人の死者を出したこの事件について、安保理に問題を提起する方針を示していた。(반 총장의 회견에 앞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북한의 공격으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Taking sides”의 한국판과 일본판은 지면의 제약으로 첨가되거나 삭제된 것이 아닌 그간의 보도의 흐름에 맞추어 즉, 한국판은 긍정적으로, 일본판은 부정적 맥락으로 각각 번역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다.

<사례6>

영문판	한국판	일본판
Taking Sides	UN사무총장은 조국의 문제에 서도 중립적이어야 할까?	事なかれ主義の潘基文が怒った！ (무사안일주의 반기문이 화났다!)

일본판에서는 ‘무사안일주의’라는 명명을 함으로써 ‘반기문총장’에 대한 이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리프레이밍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판의 경우는 ‘중립적이어야 할까?’와 같이 의문문의 서법(mood)를 취하면서 화행의 전환이 이루어져 반어적으로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만은 없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일본판은 ‘화났다!’라는 부정적인 평가어(Attitude:affcet)를 사용하여 반기문 총장의 감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사례7>

<p>&lt;영문판&g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let himself <u>off the leash</u> against Pyongyang.</p>
<p>&lt;한국판&gt;                  반기문 총장, 천안함 문제에선 <u>한국 정부의 편</u></p>
<p>&lt;일본판&gt;                  潘国連事務総長が、韓国哨戒艦沈没事件では感情むき出しで祖国に肩入れ                  (반UN사무총장이 한국 초계함침몰사건(천안함 사건)에서는 <u>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국에 편들기</u>)</p>

‘off the leash’의 경우, 일본판에서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로 번역함으로써 다소 부정적인 평가어(Attitude:affect)를 사용한 반면, 한국판에서는 굳이 번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회피하는 침묵의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8>

<p>&lt;영문판&gt;                  But <u>in an eye-popping moment</u> at the United Nations yesterday, Secretary-General Ban Ki-moon <u>showed that there is a human element of the job standing in the way of that ideal.</u></p>
<p>&lt;한국판&gt;                  그러나 최근 반기문 사무총장은 <u>그런 이상과 상충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u></p>
<p>&lt;일본판&gt;                  だが5月24日、国連で<u>驚愕すべき事態が起こった。</u>潘基文(バン・キムン)事務総長が、<u>この大原則に反して個人の感情をあらわにしたのだ。</u>                  (그러나 5월 24일, 유엔에서 경악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다. 반기문사무총장이 이 대 원칙에 반하여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p>

‘a human element’는 일본판에서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감정을 드러냈다”로 부정적인 평가어(Attitude:affect)로 전환되어 번역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이 부분은 ‘침묵의 전략’이 사용된 예가 된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이 부분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로 충실하게 번역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in an eye-popping moment’는 일본판에서 문장의 앞부분에 있다는 점에 충실하기 위해 영문판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고 첫 문장에서 ‘경악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다’로 번역하여 독자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판에서는 문장을 나누지 않고 한 문장으로 하되 ‘깜짝 놀라게 했다’를 ‘인간적인 모습’의 뒤에 배치함으로써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마치 ‘인간적인 모습에 감탄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반면, 일본판은 ‘경악’, ‘사태’ 등 Graduation을 높은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인간적인 모습’은 번역되지 않은 채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번역으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경악스럽다’라는 인상을 주며 부정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9>

<영문판>

①It was a departure from his reputation as an extremely careful diplomat. When China cracked down on Uighur protests in Xinjiang province in July 2009, ②Ban was his typically understated self: “All the differences of opinion, whe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must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dialogue,” . ③Ban also walked a delicate line in February 2008, when Kosovo declared independence from Serbia –with U.S. ...But when it came to Pyongyang this week, ④Ban simply endor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ine....

<한국판>

반 총장의 이번 언급은 극도로 신중한 외교관이라는 ①그의 평판과 다르다. 2009년 7월 중국이 신장성의 위구르족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 ②반 총장은 지극히 절제된 전형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분노를 샀을 때도 ③반 총장은 이슬아슬한 길을 신중하게 걸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선 ④반 총장이 기존의 모습과 달리 남한 정부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일본판>

これまでの潘の極めて慎重だった外交姿勢から考えると①大きな方向転換だ。09年7月に中国の新疆ウイグル自治区で騒乱が発生したとき、②潘はいつものように控えめな態度だった。...コソボがセルビアからの独立を宣言した08年2月にも（アメリカは独立を承認

し、ロシアは認めなかった)、③潘は双方に配慮する中立姿勢を崩さなかった。...  
 しかし今回の北朝鮮の件では、④潘は迷うことなく韓国政府側に回った。  
 (이제까지의 반의 지극히 신중했던 외교자세로부터 생각하면 ①큰 방향전환이다.  
 2009년 7월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란이 발생했을 때, ②반은 여느때와 같  
 이 소극적인 태도였다.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2008년 2월에  
 도 (미국은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았다) ③반은 쌍방에 배려하는  
 중립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북한 건에서는 ④반은 주저없이 한국정  
 부측으로 돌아섰다.)

영문판의 “It was a departure from his reputation”을 한국판에서는 “그의 평판과 다르다.” 정도로 한데 비해 일본판에서는 “큰 방향전환이다”라고 하여 ‘반기문총장’의 입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내어 Graduation의 강도(force)를 높이고 있다. “typically understated self”의 경우 한국판에서는 “지극히 절제된”을 일본판에서는 ‘소극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Ban also walked a delicate line”역시 한국판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면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판에서는 중립적인 측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Ban simply endor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ine,”을 한국판에서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기존의 모습과 달리’, ‘적극’이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한국입장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도록 번역하였다. 반면 일본판은 “반은 주저없이 한국정부측으로 돌아섰다.”라고 하여 ‘반총장’이 한국의 사안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사례10>

<영문판>  
 ①Ban readily admits that his personal connection to the North Korea issue informs his judgement: ... Ban said yesterday. “Now, serving as secretary-general, this is most troubling for me to see what is happening in the Korean Peninsula—that’s my motherland.” ②Some things, it seems, just transcend politics.

<한국판>  
 ①반 총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관계가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했다. ... “UN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냥 있어야 하는 상황이 가장 가슴 아프다. 내 조국이기 때문이다.”②이처럼 정치를 뒀

어넘는 일도 있다.
<일본판>
①潘は、北朝鮮に対する強い非難の裏に個人的な感情があることを隠さなかった。「...事務総長として、朝鮮半島で起きていることは何より心が痛む出来事だ——あれは私の祖国だ」
②情というもの、時に政治すら超越することなのだろう。
(①반은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 뒤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일이다 -그건 나의 조국이다”
②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치조차도 초월한다는 것일 것이다.

“admits”를 한국판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반면, 일본판은 다소 변경을 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로 함으로써 또다시 반기문 총장의 감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도록 번역했다.

“Some things, it seems, just transcend politics.”는 한국판에 “이처럼 정치를 뛰어넘는 일도 있다”라고 하여 ‘some things’를 굳이 명시하지 않고 기사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번역한 반면, 일본판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치조차도 초월한다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여 ‘정’이라는 것을 명시화함으로써, 반기문총장의 조국에 대한 감정적인 면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여 그 맥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영문판	한국판	일본판
Taking sides	...중립적이어야 할까?	...화났다!
anodyne diplo-speak	신중한 외교적 수사로 유명한	늘 중립이었던
off the leash	-	감정을 드러내며
showed that there is human element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
understated	지극히 절제된	소극적인
walked	신중하게 걸었다	중립자세를 굽히지 않았

		다
readily admits that his personal connection~	개인적인 관계 ~ 인정했다	개인적인 <u>감정</u> 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some things, it seems~	-	절이라고 하는 것은~
in the way of that ideal.	그런 이상과 상충되는	이 <u>대원칙</u> 에 반하여
It was a departure from his reputation	그의 평판과 다르다	큰 방향전환이다
Ban simply endor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ine	~적극 지지한다.	<u>주저없이...돌아섰다.</u>
his personal connection to the North Korea issue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u>강한 비난</u>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판에서는 ‘신중한’, ‘인간적인’, ‘절제된’ 등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어(Attitude:judgement)가 사용된 반면, 일본판에서는 ‘중립’, ‘소극적’ 등 한국판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어(Attitude:judgement)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Graduation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일본판에서 ‘대원칙’, ‘큰 방향전환’, ‘강한 비난’ 등 ST에는 없는 강도높은 Graduation으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판과 일본판 모두 각각의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하지 않는 ‘침묵’의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king Sides’의 영문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로는 볼 수 없어 그간의 맥락으로 보아 일본판에서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기사로 보여진다. 반면, 한국판의 경우는 번역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번역기사로 선정되면서 표현의 생략이나 긍정적인 평가어의 첨가로 그동안 한국판에서 보도되었던 맥락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판의 경우는 원문보다도 더욱 부정적인 표현을 넣어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Taking Sides’는 ST를 사이에 두고 TT(a)와 TT(b)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맥락을 설정하여 재맥락화되고 있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림3>

이처럼 한쪽은 긍정적으로 또 한쪽은 부정적으로 번역이 된다면 TT(a)와 TT(b)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 그 결과 TT(a)와 TT(b)의 독자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기사문을 접하게 될 것이다. 뉴스위크 일본판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의 글이 있다.

■ ニュースウィーク 日本版の紹介

日本だけのニュースを読むか、世界と同じニュースを読むか。世界と同じニュースを読む！それが、ニュースウィーク・パブリック。  
『ニュースウィーク 日本版』はネット社会だからこそ「信頼」できる「質」の高い情報を求め、日本だけのニュースではない、世界と同じニュースを読む価値を知る皆様に読まれています。

(번역)

“뉴스위크 일본판은 인터넷 사회에 발맞추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정보를 찾아 일본만의 뉴스가 아닌, 세계와 같은 뉴스를 읽을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com.co.jp/Newsweek/>)

하지만, 뉴스위크 한국판과 일본판에서 모두 각각의 맥락에 맞추어서 기사를 선정하고 번역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사의 사례의 경우, 두 국가의 TT독자가 ‘세계와 같은 뉴스’를 읽고 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뉴스위크 영문판의 기사가 한국판과 일본판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재맥락화되어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기사 선정의 재맥락화와 기사 내용의 재맥락화로 나누고 하나의 ST와 두 언어로 된 버전의 TT에 대해 맥락의 거리를 세가지 모델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로 ST와 TT(a:한국판), TT(b:일본판)의 맥락의 거리가 동일한 경우와 두 번째로 두 TT 중 하나의 TT만 다른 맥락으로 번역된 경우, 세 번째로 두 TT 모두 각각 다른 맥락으로 번역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세 번째 모델에서 두 TT 간의 맥락의 거리가 가장 멀어질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번역의 양상은 TT독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기사의 경우는 일회성으로 보도되고 그치는 내용이 아니고 뉴스위크 영문판에서 ‘반기문 총장’의 재임 기간 내내 유엔에 대한 기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내용의 선정에 따라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도되어 온 경우는 부정적인 기사도 긍정적으로 전환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온 경우는 긍정적인 면을 굳이 ‘침묵’하거나 부정적 표현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번역함으로써 그간의 흐름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기사문 ‘We Bear Responsibility’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 해당국가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생략을 하거나 애매하게 번역함으로써 재맥락화된다. 뉴스위크 영문판의 ST 독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판과 일본판의 TT독자들은 그만큼 편파적으로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번역자 및 번역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와 TT독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영문판과 한국판, 영문판과 일본판에 대한 각 연구를 토대로 동일한 기사의 양국 언어로의 번역양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TT 간의 거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했음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향후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번역자의 역할과 번역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지혜 (2005) 「번역텍스트 제작의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번역자의 역할」, 『번역학연구』 6(2): 7-29.
- (2008)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이창수 (2007) 「영역된 관광안내 텍스트의 기능적 효과성 분석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155-180.
- (2009) 「영어 관광안내서의 평가어 비교분석연구」, 『영미연구』 20:

- 187-205.
- 이철원 (2004) 『여가연구 이야기』, 대한미디어.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A Narrative Account*-, New York: Routledge.
- (2006) ‘Contextualization in Translator - and Interpreter-Mediated Events’, *Journal of Pragmatics* 38: 321-37.
-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 *social semiotics* 17(2): 151-69.
- Barnard, Christopher (2000) ‘The Tokaimura Nuclear Accident in Japanese Newsweek: Translation or Censorship?’, *Japanese Studies* 20(3): 281-94.
- Fujii, Aki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XXXIII(1): 32-37
- Halliday, M.A.K.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Rivesed by Christian M.I.M. Matthiessen)*, London: Arnold.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lanslator*, New York: Longman.
-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New York: Routledge.
- Kang, Ji-Hae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Translation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2): 219-42.
- (2010) ‘Positioning and Fact Construction in Translation’, in Mona Baker, Maeve Olohan, and Maria Calzada P rez(eds.), *Text and Context*, Manchester: St.Jerome: 157-87.
- Lee, Chang-soo (2010) ‘Translating Evaluative Language in Literary Translation’, 『통번역학연구』 14(1):145-166.
- Martin, J.R. & White, P.R.R.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 Grave McMillan.
- Munday, Jeremy (2007) ‘Translation and Ideology’, *The Translator* 13(2): 195-217.
- (2010) ‘Evaluation and Intervention in Translation’, in Mona Baker,

Maeve Olohan, and Maria Calzada Perez(eds.), *Text and Context*, Manchester: St.Jerome: 77-94.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Tymoczko, Maria (2003) 'Ideology and the Position of the Translator: In What Sense is a Translator 'In Between?''', in Maria Calzada Perez(ed.) *Aporos of Ideology: Translation Studies on Ideology - Ide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Jerome: 181-201.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파주: 열린책들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Towards and Ethics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Abstract]

**Recontextualization in Translated News Articles:  
Comparative Analysis with Focus on Evaluative Language in Translated  
Korean and Japanese Newsworld Articles**

Lee, Juriae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research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t aspects that appear on the Korean Newsworld version (TT(a)) and the Japanese Newsworld version (TT(b)) through recontextualization as they are translated from the English Newsworld version(ST). English Newsworld articles are selected and translated into Korean and Japanese versions to fit their social atmosphere and perspective as a means of gatekeeping. Narratives undergo positive or negative reframing during the process of translation when their contents vary in context from the Korean and Japanese social atmosphere and perspective.

Recontextualization can take place either partially or entirely. Latter cases of recontextualization are determined so according to their use of appraisals based on the Martin & White(2005) evaluation method. It can also be observed how far TT(a) and TT(b) departs from the ST through recontextualization. The more the TT is recontextualized the further it departs from the ST. When the context of narratives in the Korean and Japanese versions take a different course from each other after entire recontextualization, it can hardly be maintained that they have been translated from the same news article. It is an issue to be rais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s readers of TT(a) and TT(b) will be given news articles that are distant and distorted in context from the ST.

▶ Key Words: appraisal, gatekeeping, narrative, recontextualization, reframing

이주리에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

wnfldo@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의 재맥락화, 담화분석, 평가어

논문투고일: 2011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04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